

KOBAS 2017
REVIEW

전시장 1층 A홀, 프로 오디오 장비 리뷰

글.
나경록 CBS 디지털기술국 기술감독
(방송과기술 편집위원)



방송국에 다니면서 많은 음향기기를 접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생각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지는 않는 곳이 또한 방송국인 것 같다. 방송이라는 특성상 검증된 제품,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방송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방송, 음향 전시회인 KOBAS는 다양한 음향기기들과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이번 KOBAS 2017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새롭게 나오고 전시가 되었는지 기대하며 관람 시작하였다.

● SENNHEISER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현재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방송용 마이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튜디오나 확성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독일 오디오 제품 젠하이저 부스였다. 부스로 처음 들어가는 길목에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Digital 6000' 무선 마이크였다.

젠하이저의 최고급 무선 시리즈인 'Digital 9000'의 하위 버전으로 'Digital 9000'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Digital 9000'과 동일한 장거리 모드와 독자적인 젠하이저 디지털 오디오 코덱



- 1 젠하이저 부스
- 2 MKE2 마이크
- 3 Gopro 마이크
- 4 'Digital 6000' Wireless Mic



(Sennheiser Digital Audio Codec)을 사용한다. 또한 두 개의 안테나 수신 경로를 모두 사용하고 콘텐츠를 결합하여 최적의 신호를 생성하는 트루 비트 다이버시티기술, 전송 오류 정정 및 추가 지능형 오류 숨김 기능 등을 제공하여 뛰어난 음질뿐만 아니라 무선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수신율을 자랑하고 있었다. 'Digital 9000' 시스템의 대표적인 장점이 적용된 'Digital 6000'은 공연장 같은 확성을 위한 마이크로 최적화되어 9000과는 또 다른 젠하이저만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던 제품인 MKE2와 Gopro MIC를 살펴보았다. 최근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수많은 방송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이동이 편하고 외부환경에 강한,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마이크가 바로 이 MKE2와 Gopro MIC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동형 모델인 MKE2였다.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쉽고 야외용인 만큼 외부 잡음 차단에 신경을 쓴 것이 느껴졌다. 또한 클립형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다 편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모바일과의 연결 잭이 아이폰용만 출시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

● SAMA SOUND

국내 음향 업체의 대표주자 삼아프로사운드에서는 마이크의 대표적인 브랜드 Shure뿐만 아니라 Allen&Heath, GENELEC 등 세계적인 음향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부스에 가까이 가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부스의 전면을 차지한 Allen&Heath사의 다양한 디지털 콘솔들이었다.





1

- 1 QU-32 콘솔
- 2 GLD-112
- 3 GLD-80
- 4 dLIVE S5000
- 5 dLIVE C3500
- 6 AXIENT DIGITAL



2



3



엔트리급 모델인 QU 시리즈부터 하이엔드급 모델인 S클래스 모델까지 단계별로 전시되어있어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시가 되어있었다.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라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UI가 굉장히 직관적이었다는 것이다. 화면이 정전식 터치스크린으로 되어있어 마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것 같은 부드러운 조작이 가능했고, 라우팅과 같은 설정들을 할 때에도 Drag&Drop 만으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해 초보자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밖에 DEEP 프로세싱 아키텍처를 통해 다양한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큰 특징이었다. 그래픽 EQ, 컴프레서, 멀티밴드컴프레서, 다이내믹 EQ 등 강력한 플러그인이 내장되어있고, 그러한 플러그인이 마치 DAW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적용하여 마치 아날로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친숙함으로 다가왔다.

이번 KOBAS 2017에서는 특히 새롭게 선보인 하이엔드급 모델인 dLIVE의 C class가 눈에 띄었다. 기존 S class에서 좀 더 저렴하고 컴팩트한 모델로 새롭게 나온 C class는 기존의 S class와 성능은 거의 동일했지만, 파워나 컨트롤라인 같은 redundancy를 뺐다는 것만 달라졌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품에 절대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묻어난



5



6

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다음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SHURE의 무선 디지털 최상급 마이크인 AXIENT DIGITAL의 ADX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AXIENT ANALOG의 디지털 모델인 이 시리즈는 변조방식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의 특징인 깨끗한 음질과 효율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또한 주파수간섭기능 회피기능을 통해 주파수가 간섭이 발생하면 백업주파수로 자동으로 끊김 없이 바뀌 주고, 컨트롤신호를 2.4GHz 대역에서 주고받아 주파수 환경을 감시하고 그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적의 마이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특징이었다.



Microflex Advance 어레이 마이크

이번 삼아 부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제품은 SHURE의 Microflex Advance 어레이 마이크였다. 회의실과 같은 실내공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각자에게 마이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나 회의탁상에 지향성을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 하나만을 둔다. 천장에 사진과 같은 마이크를 매달고 단테 네트워크를 통해 이더넷케이블로 연결된 PC로 지향성을 조절하여, 마이크 하나만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더욱 생산적인 회의를 가능케 하는 회의 솔루션이다. 실제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이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실제 앞에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뛰어난 음질을 자랑하고 있었다. 음성 신호를 깨끗이 향상시키면서 노이즈는 제거하는 기술력이 놀라웠다. 또한 회의실의 크기에 따라 천장에 달 수 있는 모델과 탁상에 놓고 사용하는 모델이 따로 있어 상황에 따라 마이크를 바꿀 수도 있었다.

● SOUND SOLUTION

이번 전시회에서 사운드솔루션은 디지털 믹서 브랜드 마이다스(MIDAS)의 플래그쉽모델 PRO X를 비롯해 RCF의 HDL-50A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라이브 콘솔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인 마이다스(MIDAS)의 여러 시리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플





- 1 MIDAS PRO X
- 2 M32
- 3 랙에 전시된 관련 장비들
- 4 RCF HDL 50-A
- 5 M32R



래그쉽 모델인 PRO 였다. 마이다스 제품은 회사에서도 외부공개방송을 나가면 들고나가는 콘솔이라 성능의 우수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플래그쉽 모델은 처음 보게 되었다. 하이엔드급 모델답게 168개의 동시 입력채널을 지원하고 24개의 멀티채널 이펙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2개의 큰 15인치 화면은 직관성이 높았고, 정전식 패널을 사용하여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오디오시스템엔진 NEUTRON은 고성능 FPGA 기술과 고효율 MIMD(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를 기반으로 800개 이상의 오디오신호경로를 처리 가능해 시스템 확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밖에 지난 방송과기술 5월호에서도 소개되었던 M32, M32R 콘솔도 전시되었다.

또한 오디오장비 전문업체인 RCF의 다양한 스피커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신제품 HDL 50-A 제품이 눈에 띄었다. 2×12인치 우퍼와 4개의 대형형 6.5인치 미드레인지, 2개의 2인치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내장된 4400W 3-WAY Class-D 앰프와 함께 높은 SPL 성능과 음질을 구현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다.



Symetrix PRISM Series

그밖에 새로이 런칭한 프로세서 전문 브랜드 Symetrix 아날로그 입출력 및 Dante를 갖춘 DSP를 탑재한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서 Symetrix PRISM Series를 비롯해 데논과 베이어드아이나믹 제품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YAMAHA

세계적인 음향업체답게 이번 KOBEX 2017에서 야마하무직코리아는, 초보자부터 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음향 장비를 비롯해 중소 규모 상업 공간에 설치되는 음향 시스템까지 다양한 음향기기를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최초 디지털 믹서 출시 이후 30주년을 맞아 수준 높고 다채로운 디지털 믹서를 선보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상의 제품으로 손꼽히는 하이엔드 디지털 믹서 RIVAGE PM10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YAMAHA의 기술력을 집약해놓은 믹서라고 하는데 아웃보드 이펙터가 전혀 필요 없이 믹서 하



- 1 RIVAGE PM10
- 2 YAMAHA 설치용 오디오제품들
- 3,4 YAMAHA VXS1ML



나만으로도 고음질 고풍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최근 YAMAHA는 PA 등 프로페셔널 제품뿐만 아니라 건물들에 들어가는 설치용 오디오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닛은 작지만 음질은 어떤 스피커보다 좋게 만들자는 목표로 만든 VXS M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다. 국내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VXS1ML의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연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실감 나는 사운드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직접 들어보니 그 작은 스피커에서 굉장히 고풍력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1 JBL의 Intellivox 스피커
2 Soundcraft vi5000
3 Soundcraft vi3000

TechData

테크데이타에서는 가장 먼저 세계적인 오디오명가 HARMAN의 Soundcraft vi5000 콘솔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128 Input, 32 Output이 지원됐고, 16개의 VCA가 가능했다. 4개의 bay는 MIX 중간에도 독립적으로 동시에 조작이 가능했고,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HARMAN 제품이기엔 EQ나 컴프레서는 DBS를 사용하고, 이펙터는 lexicon을 사용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부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제품은 JBL의 Intellivox 스피커였다. 디지털로 제어하는 파워드 어레이 스피커인 이 모델은 별도의 DSP를 가지고 있어, 현대음향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반사음이 많은 넓은 공간에서 명료하게 소리가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환경에 맞게 지향성을 조절하여 반사음을 줄이고 명료성을 강화하여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건물과 거리에 설치가 되어있다고 한다. WinControl이라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팅, 모니터링을 쉽게 하여 조작도 어렵지 않았다. 출력을 높이지 않고 고도로 진보된 지향성기술로 명료성을 높여 더욱 멀리까지 들릴 수 있다는 것에 JBL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다.





● 대경바스컴

이번 KOB에서 대경바스컴은 새롭게 개발한 Wireless 마이크인 WRT-700시리즈를 선보였다. 단테와 DSP, 트루다이버시티 기능을 사용하여 뛰어난 음질을 제공했고, 마이크부터 수신기를 설계부터 제작까지 직접 개발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RENKUS-HEINZ의 iCONYX Gen5 지향성 스피커를 직접 움직이며 지향성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부채꼴 모양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스피커를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시연도 진행되었다. 지향성을 조절할 수 있어 콘서트장이나 교회의 기둥, 벽 등 불필요한 곳에 소리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지향성 스피커의 특징이었다. 그밖에 스마트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 포터블 디지털 통합방송 시스템, 디지털 네트워크 재난안전 방송시스템, 디지털 영상의회의시스템, 3D 방송 영상/음향 편집 및 송출 장치 등을 선보였다. 📺



- 1 무선마이크 시스템
- 2 WRT-700
- 3 iCONYX Gen5
- 4 FHD 영상 입출력 장치
- 5 3D 방송 영상/음향 편집 및 송출 장치

KOBAS 2017
REVIEW

진화를 거듭하는 조명, 새로운 창조를 말하다

글.
이승현 SBS A&T 조명감독

KOBAS 2017 쇼를 관람 후 첫 느낌은 '변화'이다. 전년도에 비하여 조명의 부스가 다소 축소되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2016년과 조명장비의 변화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유럽의 유명한 공연에서 선보인 장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장비도 있었고, 기존 장비에서 한층 향상된 성능으로 돌아온 장비도 있었다.

LED 장비는 올해 KOBAS 쇼에서 안방마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LED가 빠진 전시회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LED 장비의 발전과 변화는 어디까지일까 가능하기 힘들 정도이다.



전시회 참여 업체와 데모운영



전시회 참여 업체 부스

기존의 전기방전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모두 LED 광원을 소스로 하는 장비로 탈바꿈되어 전시되고 있었으며, 전시회에서 램프타입형 조명장비를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것은 조명 장비와 IT 기술의 연결이라는 점이다.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 중 하나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전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조명의 연결 방식과 제어 방식도 전통적인 신호체계 위에 언제 어디서나 제어 및 연결 가능한 IT 기반의 유, 무선 이더넷 형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 또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번 전시회에서 필자가 인상 깊었던 장비와 시스템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비부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 부분이 눈에 띄게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니버스(장비)의 채널 사용량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 무빙라이트의 기능과 성능의 향상으로 장비가 사용하는 채널이 많이 늘어남으로 현재 사용하는 DMX 512로는 여러 한계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ARTNET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ARTNET은 바로 네트워크 기반 신호시스템이다. DMX 채널의 증가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현시대에서는 네트워크라는 것이다.



LuminexJapan 社の 네트워크 시스템과 마루모 님머 시스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LED의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었다. SPOT LIGHT, FLOOD LIGHT, MOVING LIGHT 외에 야외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 라이트의 발전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특히 요즘 나오는 LED 장비들은 IP 지수라고 하는 방수기능을 제조사들이 필수적으로 탑재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1 ARRI사의 스카이 패널 LED 라이트
- 2 코에마사의 LED 소스포 라이트
- 3 독일 GLP사의 LED 무빙 스트로보
- 4 자이라이트 LED SPOT LIGHT
- 5 독일 GLP사의 X4 아톰(atom)
- 6 일본 USHIO사의 레이저 셔치



특히 인상 깊었던 아튬 장비는 작은 몸체는 좁은 공간이나 뻥뻥한 곳에 설치가 매우 용이하게 보였고, 줌 기능도 좋은 것 같다. 9:1의 줌으로써 3.5°~34° 빔앵글을 가진다. 한 대로 효과 내기보다는 GLP사에서 개발한 인터록(interlock) 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게 여러 대를 연결하여 보다 멋진 조명 디자인도 가능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조명의 소형화, 경량화를 말하고 싶다. LED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조명기구의 크기가 소형화와 더불어 무게까지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다양한 LED 제품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제품들의 대부분은 저전력 제품으로 기존처럼 플러그 형태를 사용하며, 이 동이 용이하게 배터리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7 데도 라이트 제품
- 8 소형 스폿 라이트 제품
- 9 소형 LED 무빙 라이트
- 10 국산장비 알라딘사의 LED 패널 라이트
- 11 알라딘사의 다양한 LED 제품
- 12 우산형 LED 라이트 제품



글을 마치며

이번 KOBA에서 마음 한켠에 뿌듯했던 것은 국산 제품들의 선전이 많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국산 LED 제품은 예년에 비해 제품의 다양성과 유저의 요구가 많이 반영되어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또한 필자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접해왔던 조명브랜드 외에 처음 들어 보지만 지금껏 한국 시장에 선을 보이지 못하다 KOBA를 계기로 국내 조명 디자이너들에게 제품을 어필하려는 조명제조사들의 움직임도 눈에 많이 보였다.

비록 2016년에 비해 조명부스가 다소 줄어든 느낌은 있었지만 내용은 결코 전년도에 비해 뒤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조명, 우리의 상상과 생각으로 머물렀던 조명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제품화되어 우리에게 선보이고 있다. KOBA 2018에는 어떠한 상상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더욱 볼거리 있고, 내용도 있고, 발전도 있는 KOBA 쇼를 희망한다. 

지상파 방송사 전시부스

● Intelligent EBS를 만나다

2017년 EBS KOB A에서는 'Intelligent EBS'라는 주제로 UHD 콘텐츠, VR 연계방송, 신규 모바일 융합서비스 전시를 통해 지능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키워드 속에 다양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방송통신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UHD Zone UHD Zone에서는 EBS에서 제작한 UHD 다큐멘터리 '불명의 진시황', '인류문명의 동반자 가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이 송출되어 각 가정의 TV로 수신되기까지의 단계를 실제 구현하여 전시하였다.

VR Zone 체험형 VR Zone에서는 EBS Play의 번개코드를 활용한 VR-방송 연동 체험, VR 세컨드스크린 서비스, VR 360 라디오 생중계 서비스, 번개맨 4D 카 어트랙션 등 방송-VR을 융합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다.

Mobile Zone Mobile Zone에서는 EBS에서 올해 런칭한 EBS 모바일TV 플랫폼 'EBS Play'와 인터넷 플랫폼과 융합한 초등학교 전문 모바일 교육 콘텐츠 '스쿨잼'을 소개하였다.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하기 EBS는 웹툰 읽어주는 라디오, 외국어 라디오를 주제로 EBS만의 특성을 잘 살린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KOB A 전시에서는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내 큰 호응을 얻었다.



KBS



KBS는 UHDTV 관련 다양한 신기술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끌었다.

UHD 문자발생기, 4K 영상신호 색공간 변환시스템 등 KBS 미래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UHD 관련 신기술들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UHD 방송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제작, 편집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UHDTV 방송 플랫폼 서비스 시연 공간에서는 ESG와 홈포털을 소개하였다. 이미지나 동영상 클립을 이용한 역동적인 프로그램 정보 전달 서비스와 UHDTV 방송플랫폼을 이용한 양방

향 서비스 시연을 통해 곧 다가올 UHD 방송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 주었다.

MPEG-H 3D 실감음향 체험관에는 태양의 후예 등의 콘텐츠를 입체감 넘치는 입체음향으로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 가정에서 체험관 같이 많은 라우드 스피커를 설치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실감음향용 사운드바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실감음향의 대중화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그 외에 KBS 방송장비 인증센터, UHD KOREA, HD DMB 시연 공간을 통해 KBS가 시청자를 위한 공적책무의 역할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the NEXT CBS

이번 KOBAS 2017에서 CBS는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the NEXT CBS'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준비하였다.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서 CBS만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시하고, 각종 시연과 체험을 통해 참관객들에게 CBS가 제시하는 미래 방송기술 방향을 볼 수 있었다.

레인보우 서비스 CBS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레인보우의 새로운 기술인 '청취자 신청곡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청취자 신청곡 실시간 분석 시스템'은 레인보우 게시판, 문자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게시판 등을 통합 운영하는 'SNS 통합플랫폼'에 올라온 CBS 라디오 청취자의 신청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 분석하여 청취자의 신청곡 순위 결과를 제공한다.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날짜, 시간대별, 날씨, 성별, 연령별 등 항목별로 조합하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신청곡 순위를 알아볼 수 있으며, 생방송 중인 진행자가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선곡에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이브리드 라디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FM 라디오를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전파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FM 수신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FM 수신기능을 비활성화한 채로 출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하이브리드 라디오다. 전파로 라디오를 수신하고 방송 정보나 청취자 피드백은 IP망으로 하는 것으로 라디오 사업의 활성화와 이동통신사의 수입을 같이 보장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라디오 수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11월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하이브리드 라디오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재까지 고민하고 모색해온 하이브리드 라디오 섹션을 마련하여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에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 보편적인 FM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했다. 스마트폰으로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며, 차량용 하이브리드 라디오 모델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번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협업 통해 KOBA TV 부스를 선보였는데, '제작-편집-전송-수신'의 워크플로우를 국산방송장비로 구성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였고, KOBA 전시장의 주요 장비업체 인터뷰를 최신 소식을 전하였으며, 토크쇼를 통해 현재의 방송기술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KOBA 2018에서는 더욱 내실있는 구성과 프로그램으로 생생한 전시 정보를 방송할 예정이다.

KOREA UHD STUDIO

기본 컨셉은 지난 3월 27일 개최되었던 '글로벌 UHD 컨퍼런스'의 'UHD 체험존'에서 가져왔지만 실제로 스튜디오를 꾸미고, 이를 편집하여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를 위해 Lumes의 조명과 넥스트디아이의 백업스토리지 등이 제작에 사용되었고,



월간 방송과 기술과 KOBA 데일리도 전시되었다



제작 및 편집을 진행하는 보조정실 역할의 간이 부스

티브이로직의 방송용 모니터와 비주얼리서치, 컴픽스의 문자발생기, 루먼텍의 스위치가 편집에 사용되었다. 전송에서는 비디오서버와 엔코더, 스케줄러, 트랜스미터 등의 장비가 디지캡, 에어코드, 픽스트리, 진명통신 등의 업체 제품이 전시되었다.

KOBA TV

NAB, IBC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는 자체 스튜디오를 통해 전시장의 소식을 방송한다. KOBA에서도 이처럼 전시장 곳곳의 소식과 부대행사에 대한 안내, 장비업체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통한 부스 소개를 하여 KOBA



KOBA TV, 방송사 및 주요 이슈관련 인터뷰



KOBA TV, 전시 부스에서의 최신 장비관련 인터뷰

2017의 소식을 전달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서도 주요 전문가를 섭외하여 미디어 및 방송 관련 현황에 대해 좌담형식의 토론으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